

도내 시군에 대면상담 대입 지원 강화

전북자치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출범... 단원 133명에 위촉장 수여 자료개발·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 등 나눠 2025학년도 전력 허브 역할 수행

올해 모든 시·군에 대면 상담 컨설팅이 제공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층 강당에서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133명의 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장진호 서립고 교사가 단장을 맡아 △연수 및 현장지원팀 △자료개발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 △수능전형 연구팀 △대입 진로진학상담팀 △대입협력팀으로 나눠 2025학년도 대입 진학지도 정보 및 전략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연수 및 현장지원팀은 진학지

도 연수를 지원하고 단위학교 작은 입시설명회를 추진한다. 올해도 모든 시·군에서 입시설명회를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정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 자료개발팀은 대학별 전형자료를 수집·분석해 대학진학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진학 시기별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연구팀은 학교 40의 면접 컨설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생부종합전형 사례집을 개발해 종합 전형 지원 수험생들을 돕는다.

다음으로 수능전형연구팀은 대학별 정시전형과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 경

향을 분석해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대입 진로진학상담팀은 상시 대면·화상 대입상담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전화 상담을 병행해 24시간 진로진학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대입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롭게 실시하는 진학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입지원단을 작년 108명에서 올해 133명으로 대폭 확대했다"면서 "학생10학부모의 진학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의 진학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자치도교육청, 29일까지 학폭 전담조사관 집중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29일 4일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00명을 대상으로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법령 및 제도 이해를 위한 공통소양 교육과 △면담(상담) 기법 △사안 조사 방법 △보고서 작성 등 실무 교육으로 진행된다.

앞서 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공모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100명을 선발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담조사관과 협력해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까지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27일 이틀간 올해 개교 및 이전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새 학기 등교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르면 전라중학교, 삼례동초등학교 등 이전 학교 2곳과 삼봉유치원, 전주문정유치원, 전주늘푸른유치원 등 개교 학교 3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 △학교 인접도로 보행자 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과속방지턱 설치 여부 △통학로의 보·차도 분리 여부 △보호구역 내 주차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 안전 여부 등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개학 전 안전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2024학년도 신규교사 임용 35명 합격

우석대학교(총장 남찬현)는 2024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신규교사 임용에 35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6일까지 합격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특수교육과 17명 △유아특수교육과 5명 △수학교육과 1명 △국어교육과 1명 △간호학과 3명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8명 등이다.

우석대학교 사범대학 입학지원이 119명, 교육대학원 입학지원이 49명임에도 매년 다수의 특수학교 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부단한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과 밀착된 촘촘한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전제 교수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도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우석대학교는 매년 예비교원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특강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남찬현 총장은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학생들의 노력 덕분에 우수한 결실을 보게 됐다"며 "임용에 합격한 학생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하며, 훌륭한 교육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부안군, RIS사업 지역 농식품 수출 성과

은하수 영농조합법인-말레이시아 헤이웨이 벤처스사, 농식품 수출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부안군과 진행하는 전주자치도 RIS(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을 통해 관내 소재 청년기업인 은하수 농업 조합법인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헤이웨이 벤처스사와 농식품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RIS사업 참여기업인 부안군의 (주)은하수 농업회사법인(대표 김민석)은 부안군과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에 선정, 전주대학교와 함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마켓트 상품 등을 개발했다. 헤이웨이 벤처스(대표 아흐메디 마흐디)는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농식품 무역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이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부안군 농산물을 활용 개발한 농식품 수출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역 농산물을 수출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부안군과 전주대학교는 지자체 대학



전주대학교는 부안군과 진행하는 전북자치도 RIS 지원을 통해 관내 소재 청년기업인 은하수 농업 조합법인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헤이웨이 벤처스사와 농식품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에 '부안군 청년 정주형 특화 Food Biz-R 사업' 과제를 선정, 운영 중이다.

전주대학교 사업책임자인 이대희 교

수는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수출형 브랜드를 개발하고, 농식품을 상품화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지역 농산물의 신뢰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 수송기기 관련 기업체 초청 성과 공유

전북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단장 이덕진)은 지난 23일 수송기기 관련 기업체 초청 성과 공유 및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수송기기 산업체 간의 협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수송기기 산업 발전과 혁신, 그리고 전북지역혁신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연구 및 기술 분야에서의 지식 공유와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의 연계 전략으로서 리빙랩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문제 해



결형 민-산-학-연-관의 협력 모델이자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리빙랩 활동을 소개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북 미래 수송기기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사업단 추진사업별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그리고 동반기업 협의체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및 부문별 과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과 현대자동차 전북공장과 MOU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파트너로서의 연계를 공고히 했다.

이덕진 단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의 미래 수송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수송기기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지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0일 본부 접견실에서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교와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신문 창간 70주년·기자회 창립 50주년

'옹골찬 젊음, 늘푸른 정론'

기념식 열고 산민기자상 2편 선정 기자회, 대학에 2000만원 장학금 전달

전북대신문이 창간 70주년을, 전북대신문 기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에 전북대신문과 전북대신문기자회는 지난 24일 진수당에서 '옹골찬 젊음, 늘푸른 정론'이란 주제로 작지만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전북대신문사 사장)과 기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우병기 전주시장, 최병선 전북대총동창회장, 김동근 전북대교수회장, 김재영 전 주간교수, 기자회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 전북대신문사와 기자회는 지난 70년간 보도된 기사 2편을 골라 산민기자상을 시상했다. 수상작은 '1982~1992년 10년간 연재한 향토발굴시리즈'와 '4·19혁명'을 특집 보도한 제77호 신문' 등 2편이다. 상금은 각각 100만원이다.

산민은 전북대신문사의 교문이었

던 고 한승헌 감사위원의 호다.

이와 함께 기자회는 이날 전북대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양오봉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1954년 창간된 전북대신문은 창간호부터 1,560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침 속에서 대학언론의 원칙과 기본을 지켜왔고, 대학사의 기록자로서 생생한 현장을 담아왔다"며 "오늘 전북대신문 창간 70주년과 기자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부단히 노력해 창간 100주년, 나아가 200주년에 이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권 전북대신문기자회장(국민일보 기자)은 "학생기자 시절 대학신문을 통해 시대정신과 비판정신을 배웠다"며 "앞으로도 옹골찬 젊음 늘 푸른 정신으로 모교와 지역,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계약업무 공정성·전문성 향상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까지 계약담당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27일 이틀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분청 및 지역교육청 계약담당자 76명을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계약 실무 △적격심사 △MAS(다수공급자계약) △원가계산 △채권 압류 △청렴교육 등이다.

이에 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계약교육을 적극 확대해 계약 담당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렴도 또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현장 중심의 계약 실무형 업무편람 제작 △사업부서 담당자와 일대일 계약업무 컨설팅 △학교시설공사 지원단 운영 △학교 입찰 적격심사 대행 △1인 수의계약 서



식 표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업무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더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계약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및 청렴계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방보조금 관리 건전성 높인다

전북자치도교육청,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집행방법 교육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요령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지방보조금 관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민간보조사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보조사업자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요령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 유의사항과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교육정보시스템은 교육부에서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

게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선정·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과정을 전산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보조사업은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어 사업별로 수기 관리됐다.

이상근 예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정보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